

## 근심을 덜어주는 무수천



계곡이 흔치 않은 제주에서 무수천은 제주시내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몇 안되는 계곡이다. 근심과 걱정이 없어진다는 무수천의 아름다운 절경을 따라 이어진 길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우평로** | 제주시 노형동 3129-1 ~ 제주시 외도1동 620-2(약 3.7km)

**도평길** | 제주시 도평동 737-4 ~ 제주시 도평동 936(약 0.9km)

**무수천길**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5 ~ 애월읍 광령리 1457-1(약 0.4km)

**사라길** | 제주시 해안동 2145-1 ~ 애월읍 광령리 1846(약 2km)

**창오길** | 제주시 도평동 1345 ~ 제주시 도평동 1191-1(약 1.4km)

**장군내길** | 제주시 도평동 876-3 ~ 제주시 도평동 1052-1(약 1.2km)

**고래소길** | 제주시 도평동 934-1 ~ 제주시 해안동 2204(약 1.4km)

**곱은이길** | 제주시 도평동 133-10 ~ 제주시 도평동 937-1(약 1.4km)

**여룡길** | 제주시 도평동 318 ~ 제주시 도평동 235(약 1.1km)

**해안마을길** | 제주시 해안동 2098-1 ~ 제주시 해안동 374(약 3.3km)

**해안뱅디길** | 제주시 해안동 844-1 ~ 제주시 해안동 806-4(약 0.9km)

## 우평로 / 도평길 / 무수천길 | 무수천



무수천

우평로는 외도의 우렁이마을에서 남쪽의 도평마을에 이르는 길이다. 도평마을은 넓은 평지에 있는 마을이어서 제주어로 ‘벵디’라고 부르다가 한자를 차용하면서 평대(坪代)라고 표기했다. 그런데 구좌읍에도 평대라는 마을이 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 크다는 뜻의 ‘도’자를 붙여 도평대(都坪代)라 하다가 도평(都坪)이라 부르게 되었다.

우평로에서 도평초등학교로 방향으로 나 있는 **도평길**을 따라가면 도평마을이 나온다. 도평마을 주변에는 여러 하천들이 지나는데 서쪽으로는 무수천이, 동쪽으로는 도근천이 흐른다. 여러 길로 나뉘 흐르던 하천들은 모두 외도에서 만나 바다로 이어진다.

제주시에서 평화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갈라지는 **무수천길**을 따라가면 무수천의 경치를 만날 수 있다. 무수천(無愁川)은 절벽과 계곡, 숲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하다 보면 세상의 근심을 잊게 된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머리가 없다는 뜻으로 무수천(無首川), 물이 말라있는 천이라는 뜻으로 무수천(無水川), 하천이 갈라지는 곳이 많다고 해서 무수천(無數川)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 사라길 / 창오길 | 사라마을



서천암 불상

무수천과 연결되는 또 다른 길은 **사라길**이다. 옛날 사라마을이 있던 곳을 지나는 이 길은 무수천을 건너는 다리를 지난다. 사라(紗羅)라는 이름은 ‘동쪽 땅’ 또는 ‘신성한 곳’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라마을 북쪽 골짜기에는 용장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한다. 이 절에는 오래된 굴나무가 있어서 이 나무의 굴을 나라에 진상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리고 고려 말 승려 혜일이 수도생활을 했다고 전해지는 서천암

도 있었다. 서천암에 있던 불상이 인근 마을의 식당에 옮겨져 있을 뿐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사라마을을 지난 무수천은 창오랭이라 부르던 창오마을로 향한다. 무수천 계곡을 따라 이어진 **창오길**에서 무수천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 장군내길 | 장군내

창오마을에서 갈라진 무수천의 지류는 장군내와 만난다. 장군내는 장군이나 활 쏘는 사람이 많았다는데서 불린 이름이다. 그 위를 **장군내길**이 통과한다. 장군내에는 여장군석이라 불리는 바위가 있었다. 옛날 도평에는 힘이 센 여자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은 이 바위의 기운 때문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힘에 남편이 지붕 위로 던져졌다는 우스갯소리도 전해온다. 하지만 힘센 여자들을 당해내지 못한 마을 청년들이 여장군석을 부수자 그 후로는 힘센 여자들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 고래소길 / 곱은이길 / 여룡길 | 물과 관련된 길

도평에는 이 밖에도 물과 관련된 이름들이 많다. **고래소길**은 옛날 도평동 사람들이 식수로 이용했던 고래소와 관련된 이름인데 고양이가 많이 다녔던 곳이라는 의미이다. 땃돌을 뜻하는 제주어 ‘ㄹ레’에서 왔다고 말하기도 한다. **곱은이길**은 하운내(도그내)에 있는 곱은기라는 샘의 명칭을 반영한 것이다. 이 샘에서는 시원한 물이 일년 내내 솟아나 사람들이 자주 찾았던 곳이라고 한다. **고래소길**과 **곱은이길** 사이에 있는 **여룡길**은 이름의 뜻은 알려지지 않지만 옛날에 이 지역은 좋지 않은 기운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덤을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 해안마을길 / 해안뱅디길 | 해안마을

노형로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해안마을길**은 해안마을을 의미하는 길이다. 무수천 남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나오는 해안마을은 바닷가가 아님에도 해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해안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땅 모양이 게의 눈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안(蟹眼)이라 부르다가 게는 사람이 다가가면 숨어버리니 마을에 인재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 바다처럼 평온한 마을이라는 뜻의 해안(海安)으로 바꿨다

고 한다.

노형로와 애조로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해안뱅디길**은 이 지역에 넓은 들판이 있어 ‘뱅디’라고 부르던 지명을 반영한 이름이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넓은 들판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한적한 동네였지만 큰 길들이 뚫리면서 많은 자동차들이 왕래하는 곳이 되었다.